

기능성 식품용기 생산기술 개발 계획

고객, 동종업계 신의로 인정받은 기업

가족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생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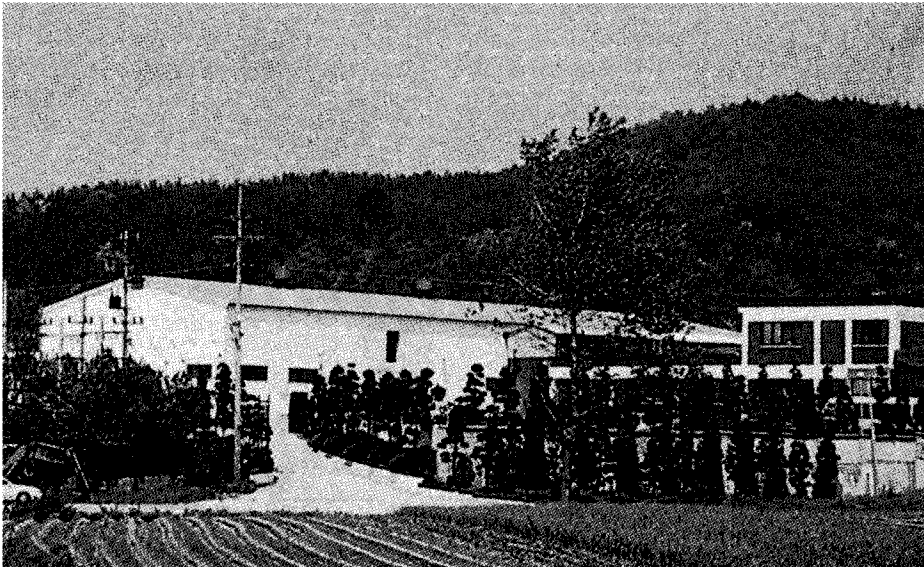
여성들의 사회생활 비중이 늘어나면서 모든 생활의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편의성이 제기되었고, 그 중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식생활의 편의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두드러지게 발전한 분야 중 하나가 포장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식품용기의 경우 조리의 편의성, 장기간 보존 등을 위한 기능성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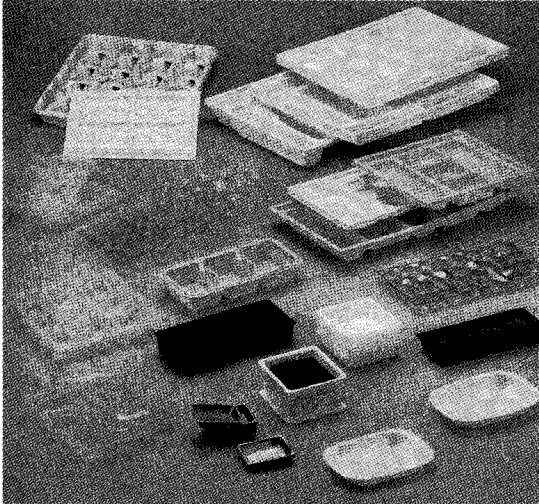
25년 이상 식품용기를 생산해온 (주)팔기의 경우 이러한 식품용기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업이다.

일회용 라면과 요쿠르트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용기는 물론, 세제, 비누곽 등 관련플라스틱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주)팔기는 식품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철저한 위생관념을 기본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용기의 생산에 무엇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의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52명의 임직



◀ (주)팔기 공장전경



▲ (주)팔기의 P.P.S.P. Sheet 용기



▲ (주)팔기의 P.P.S.P. Sheet 용기

원이 위생성을 필두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식품 용기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주)팔기는 '단 한 개의 용기라도 청결하게' 라는 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주)팔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큰 특징을 가진 제품은 전자레인지용 일회용용기이다. 25년이 넘는 식품용기 생산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이 제품은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즉석식품업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식품용기의 생산에서부터 인쇄공정까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팔기는 지난 IMF를 지나면서 어느 기업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팔기는 IMF 이전 라면성형기 2대를 구입한 직후 환율이 3배 이상 상승하면서 금리상환 문제로 큰 고비를 겪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무사히 넘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도 잠시 지난 해 9월에는 용인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또 한번의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공장의 원상복구문제와 더불어 가장 시급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저들과의 약속한 납기일이었다.

자체적인 생산의 차질은 물론 유저들의 기업활동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는 곧 (주)팔기가 25년간 꾸준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대개 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경우 동종기업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주)팔기의 경우 권태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을 발휘, 공장의 원상복구를 위한 50일간 OEM 방식으로 차질없이 제품을 생산하며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넘기게 된다.

화재로 인해 3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전상의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그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놓치 않았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만큼 (주)팔기로서는 큰 이익을 본



▶ (주)팔기의 주생산물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어려움과 소중한 경험을 준 IMF는 (주)팔기의 역사에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갖게 한다. 바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창립 이래 전 임직원이 한 가족과 같이 기업을 꾸려온 (주)팔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를 지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고 이 때 60여명의 임직원이 35명으로 대폭 감소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생산라인의 개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전 라인의 자동화를 실현하기도 한 (주)팔기는 기업이 정상화되면서 15명 이상 인원을 충원하게 되는데 충원된 인원의 대부분이 IMF 이전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어서 이채를 띤다.

기업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후 재충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간의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팔기의 기업이념이 살아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직원들로 구성된만큼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수직적인 지시와 확인의 절차보다는 자율적인 업무진행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능률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주)팔기는 각 분야별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시기별 회의를 통해 매 사안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경영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역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팔기의 기업정신이 그대로 배어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신의를 잊지 않고 지켜온 (주)팔기의 지금이 더 큰 발전을 위한 미래의 토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윤지은 기자

I N T E R V I E W



▲ 권태문 대표이사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고집

“무엇보다 큰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라고 말문을 여는 권태문 사장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이처럼 중요시 여겨온 인간관계는 지금의 권 사장을 있게 한 밑거름이기도 한데 이는 지난 IMF를 지나면서 권 사장에게 더 큰 힘과 확신으로 다가왔다.

“공장의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저를 지켜준 것이 바로 제 주변에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권 사장은 “지면을 통해서 다시한번 저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큰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권 사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굴곡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해 온 것이 바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다.

“용인을 제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만큼 지역에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권 사장의 설명처럼 지역의 불우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 일용직을 고용할 때도 지역부인회를 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꾸준히 적지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눈에 크게 띄지는 않는 일이지만, 긴 기간동안 변함없이 진행해 온 공로로 인정되어 지역 노 인정과 용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한 권 사장은 앞으로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데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 용기의 개발에 대한 국내 식품업체들의 관심과 격려로 용기업계의 발전에 초석이 마련됨은 물론, 이러한 발전의 전기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권 사장의 모습에서 포장산업의 지금을 있게 한 포장 1세대의 믿음직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윤지은 기자